

2023

새해 이렇게

이상철 곡성군수

“지역 강점 살린 탁월함·차별화로 지방 소멸 극복할 것”



민관산학협력단, 교육·주거·스마트 농정 등 특화 전략사업 발굴 청년 자립 ‘청백스마일빌리지’·소통 공간 ‘비밀언덕25’ 활성화

“지역의 강점을 살린 탁월함, 남들이 시도하지 못할 차별화, 변화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양성으로 인구소멸위기를 극복하는 정책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새해 인터뷰에서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을 목표로 계획했던 공약을 실행에 옮기겠다”며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대응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해 출범한 민관산학협력단은 지역 상생을 선도하는 협업공동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며 “실무협의체 만남을 정례화해 인구, 교육, 청년 일자리, 주거, 스마트 농정 분야에서 새로운 특화 전략사업을 끊임없이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건강한 인구구조 형성을 위한 정주 환경과 주거 정책을 확대하겠다”며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자립마을 ‘청백스마일빌리지’를 세부적으로 구성하고, 인구감소 대응 투자 계획

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비밀언덕25’를 공동체·일자리·귀농귀촌, 군민이 소통하는 복합공간으로 활성화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하잡 (JOB)센터를 지역민과 기업을 잇는 경제 상생 플랫폼으로 만들고 곡성 전통시장은 인근 기자마을, 뚝방마켓과 연결해 문화 관광형 모델로 개발하고 육과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 군수는 권역별 발전계획을 본격 시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곡성읍권은 체류형 복합 인프라와 콘텐츠로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고 문화누리도서관을 개관해 교육·문화 공간으로 제공하겠다”며 “집값 상승을 억제하고 청년주택 공급을 늘려 청년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옥과권에는 스마트팜 조성하고 기업 유치 활성화 지역으로 조성하고, 운곡농공단지는 조속히 완공해 분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석곡권은 자연과 향토 자원을 활용한 생태 치유 힐링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이 군수는 또 “섬진강에서 대항강으로 이어지는 광역 관광벨트를 올해 안에 완성하겠다”며 “주요 거점마다 이색 쉼터, 야간 경관, 모험 시설, 힐링 숲길을 조성할 계획이며 수상 스포츠 등 생태 기반의 체험 콘텐츠와 체류형 관광 상품을 운영해 방문객들의 발길이 머무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모두 함께 성장하는 곡성형 학습생태계를 구축을 위해서도 힘을 기울인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독서교육 ‘원북원맵’과 영어교육 ‘곡성 E-step’ 등 평생학습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꿈키움마루에서는 초등부 기초 체험부터 중고등부 심화 교육까지 4차 산업과 연관된 창의 융합 교육을 실시한다.

‘곡성미래교육포럼’, ‘곡성교육포털’, ‘교육돌봄체계’를 통해 마을과 학교, 청소년과 학부모가 교육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을 교육과 지역사회연구회, 민간 전문강사 양성 등 학교와 지역을 잇는 교육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지역소멸 대응 모범사례로 꼽히는 곡성유학은 올해 옥과권에 가족 체류형 거주시설을 추가하고, 석곡권을 새롭게 조성해 작은 학교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주민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권역별 건강관리센터 운영하고 고위험 1인 가구, 치매 및 독거노인 등에게는 인공지능(AI) 돌봄 반려로봇, 응급안전 시스템, 스마트 돌봄 플러그 장비, 스마트 도어락 안심 장비를 세대 특성에 따라 지원한다.

특히 첫째 300만원, 둘째 400만원, 셋째 500만원 등 출산장려금도 2배 확대하고 과학 영농과 브랜드화로 고소득 농림업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끝으로 이상철 곡성군수는 “모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 시책을 추진할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분야별 정책을 연계하는 협업 시스템도 도입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며 “273개 마을 전체 구석구석을 찾아가는 ‘마을 한바퀴’ 행정 등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wangju.co.kr

4년만에 열린다...광양매화축제 3월 10일 개막

19일까지...유료존·주차요금 징수·리버마켓 운영 등 변화 시도

광양시는 제22회 광양매화축제를 오는 3월 10-19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4년 만에 열린 광양매화축제 슬로건은 ‘광양은 봄, 다시 만나는 매화’로 시는 ‘반갑습니다. 광양매화축제입니다’라는 주제와 ‘4년 만의 재회’를 콘셉트로 차별화된 축제 콘텐츠와 한층 업그레이드된 축제로 시민과 관광객을 맞을 방침이다.

또 단순히 꽃을 보고 떠나는 축제에서 벗어나 수의 장출형 축제로 전환하고 소규모, 오픈형, 정정 등 엔데믹 시대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레저 프로그램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매화축제 아이디어 전국 공모전에서 선정된 프로그램을 축제에 도입하고 기본계획 적정성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등 질적 수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축제에서 유료존 도입, 주차요금 징수, 스폰서십과 리버마켓 유치 등 다각적인 변화를 시도한다.

축제 업그레이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체험료와 주차요금 일부를 지역사업장 이용권으로 지급하기 위한 조례 및 운영규정도 개정한다.

행사장 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관계기관 및 민간 단체 협력 종합안전 관리부서를 운영하고 원활한 교통, 동선 등을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증원 배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축제추진위에서 논의된 총감독 선임은 두

번의 공고에도 책임자가 없어 내년 축제에 적용키로 하고 한국관광공사와 관광 관련 교수와 전문가로부터 기본계획 컨설팅을 거쳤다.

시는 스폰서십 유치를 통해 축제 방문을 유도하고 감각 있는 지역 청년과 셀러들을 주축으로 리버마켓을 여는 등 다채로운 축제를 구성할 방침이다.

세계적 화두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ESG 프로그램과 셔틀버스 운영, 관광 약자를 배려한 휠체어와 유모차 대여 등 모두를 위한 관광수용태세도 강화된다.

무엇보다 배알도 섬 정원 등 광양의 관광자원, 먹거리 등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상품을 운용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광양의 숨은 매력도 선보인다는 전략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공영민(왼쪽 두번째) 고흥군수가 오영훈 제주도지사(오른쪽 두번째)와 고흥과 제주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고흥군-제주, 교류협력 프로젝트 추진

농수산물 유통 채널 확대...관광·물류 등 교류 활성화

고흥군이 제주도를 찾아 ‘고흥-제주 교류 협력 프로젝트’ 추진을 협약했다.

이 프로젝트는 제주도와와의 관광 활성화, 물류 확대 및 농수산물 마케팅 등 양 지역 교류 협력 확대를 골자로 한다.

공영민 군수는 지난 15·16일 양일간 제주도를 찾아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농수산물 유통채널 확대, 관광과 물류 등 교류 활성화 등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과거 제주도청 기획관리실장과 제주발전 연구원장을 지내 제주도와 인연이 깊은 공영민 군수의 제주-고흥 간 교류 협력 활

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고흥군은 설명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고흥 농동향의 제주 물류 전진 기지화를 통한 물류 협력으로 양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표이며, 이를 위해 고흥 쌀을 비롯한 특산물, 가공식품 교류 및 농수특산물 공동마케팅으로 양 지역의 상생 시너지를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고흥군은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제주국제공항 내 고흥군 홍보 부스를 설치해 제주 방문객에게 고흥군의 관광·귀농·귀촌·지역특산물 등을 알렸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

“설날 내가 만든 탈 쓰고 신명나게 얼쑤~”

지리산역사문화관, 25일까지 전통 민속 탈 체험 행사

구례군 지리산역사문화관이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관내 어린이집 원아들을 대상으로 ‘전통 민속 탈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 많은 전통 탈 중에서도 유일하게 국보로 지정된 양반탈과 호랑이탈, 각시탈, 토끼탈, 봉산탈을 만들어 탈마다 가진 재미난 특징을 배워보고, 직접 만든 탈을 쓰며 역사문화관 잔디광장

에서 ‘얼쑤구 절쑤구’ 탈춤을 추어 보는 등 흥이 절로 나는 전통문화 체험의 기회를 가졌다.

이 프로그램은 1월 11일부터 시작해서 1월 25일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구례군 지리산역사문화관 관계자는 “겨울방학을 활용하여 민화그리기, 전통탈 만들기 등 계절별 절기에 맞춘 세시풍속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